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

성가롤로병원

www.stcarollo.or.kr

NEWS

2026년 7월호

제335호 | 월간

등록번호 순천 라 00007
발행인 박영옥 편집인 홍보실
발행처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221
대표전화 061-720-2000
Fax 061-720-6000
홍보팀 061-720-6477~8
인쇄 도서출판 범촌

성가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수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마태 13,23)

핵심가치

1. 생명존중
2. 전인진료
3. 역량강화
4. 소통과 화합
5. 사랑과 섬김



환자 진료 연속성 높인다

진료협력 기반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 내 병·의원 관계자들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진료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6월 25일 4층 요셉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즈여성아동병원, 드림내과의원, 임종채내과의원, 플러스내과의원 등 지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진료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 의료기관은 2025년 진료의뢰 실적과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지원금을 활용해 진료협력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새롭게 구축될 시스템은 병·의원 간 의뢰, 회송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더욱 전문적이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경 진료협력팀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거점으로서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입간호사의 새로운 여정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90명의 신입간호사가 3월부터 진행된 오리엔테이션과 입문교육, 워크숍 및 손 축복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입간호사들은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는 입문 교육을 시작으로, 환자 안전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된 임상 실무교육을 이수했다. 실무교육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은 동기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배우며 진정한 병원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은 하희명 하이매 신부 주례의 ‘손 축복식’을 통해 본원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손이 ‘치유와 위로의 손’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최선의 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간호부장과 수간호사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

교육을 주관한 간호부는 “임상의 전문적인 간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곳곳이 견디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하다”라며, “신입간호사들이 병원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간호교육팀 이주연 호세아 팀장



심장·호흡재활, 3년의 시간과 2만 2천 번의 치료

6월 25일 별관 4층 재활치료센터에서 '제3회 심장 및 호흡재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시작된 심장·호흡재활치료가 3년 차를 맞아, 심장 재활 5천회 및 호흡재활 1만 7천회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마련됐다. 아울러 힘든 재활 과정을 성실히 이겨낸 환자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응원하고, 환자 치료에 헌신해 온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심장재활, 호흡재활 프로그램에 각각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사례 환자 2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서 심장 및 호흡재활 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우리 병원이 유일하다. 우리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서 선도적인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준현 재활치료센터장은 "심장재활과 호흡재활 치료가 각각 5천회, 1만 7천회를 달성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재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자의 건강 회복과 재발 방지,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심장 및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터를 벗어나 소통으로 하나 된 시간

우리 병원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병원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 속에 마무리된 데 이어, 올해도 5월 15~16일, 6월 19~20일, 총 2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병원의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교육을 비롯해 인문학 강연, 소통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어 직원들에게 배움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특히 평소 업무상 접점이 적었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서 간 협력과 조직문화 개선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병원의 역사와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워크숍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직원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참여 의사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여 직원들은 "동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and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인사팀 강현중 사원



의료 AI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치유의 본질

우리 병원은 지난 6월 1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대학원장이자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책임교수인 정재우 세바스티아노 신부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인간과 의료AI윤리'로,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병원이 AI 기술이 불러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우 신부는 이탈리아 로마 성심가톨릭대학교에서 생명윤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생명윤리 전문가답게 깊이 있는 강의를 펼쳤다. 정재우 신부는 날로 발전하는 현대 의학 속에서 의료인이 지켜야 할 가치는 환자의 생명을 향한 영성적 태도이며, 이것이 가톨릭 의료의 추구해야 할 치유의 본질을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은 "바쁜 근무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생명의 숭고함과 우리 직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인사팀 강현중 사원



심정지 환자 살리는 현장 대응력 강화

병원 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크게 좌우된다. 이에 우리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간호교육팀이 협력하여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팀 기반 심폐소생술(CPCR)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 진행되었으며, 146명의 간호사가 참여하였다. 강사진은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노종갑 응급중환자실장, 박현재 응급의학과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행정실 직원들과 간호교육팀 직원들이 보조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CPR 이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포함), LUCAS, 기관삽관 실습에 이어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어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간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간호교육팀 이주연 호세아 팀장

전문의 초대석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펄스장 절제술, 심방세동 카테터 절제술의 대중화를 기대하며



순환기내과
임영민 과장

약력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학사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과학 석박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내과 수련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전임의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임상연구조교수
안양병병원 순환기내과 진료과장 및 내과부장
현 성가톨릭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외래부교수

심방세동은 현재까지 알려진 부정맥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 하나다. 단순한 전기 회로 이상으로 발생하는 일부 부정맥과 달리, 심방세동은 심방 근육의 섬유화와 구조적 변화가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로 발생하고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로 완전히 없애기가 매우 어렵다. 노화, 고혈압, 음주, 심부전, 비만, 수면무호흡, 당뇨병 등 다양한 생활습관 요인과 전신 질환이 심방의 병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방세동은 '완치'보다는 '조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성 질환에 가깝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꾸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듯이, 심방세동 역시 적절한 치료와 위험인자 관리를 병행해 증상을 조절하고 뇌졸중과 심부전으로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러한 심방세동 치료에서 카테터 절제술은 현재 가장 강력한 리듬 조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카테터 절제술이란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혈관을 통해 심장 안으로 삽입한 뒤,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비정상 전기 신호의 진원지를 직접 차단하는 기술이다. 약물 치료는 증상 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상 리듬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카테터 절제술은 심방세동의 핵심 원인인 폐정맥 등을 전기적으로 격리해 부정맥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약물 치료에 비해 심방세동 재발을 유의하게 줄이고 심부전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사망률과 입원율까지 낮출 수 있음이 대규모 임상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있다.

최근에는 조기 치료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EAST-AFNET 4 연구는 심방세동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리듬 조절 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에서 뇌졸중, 심부전 악화, 심혈관 사망을 포함한 복합 예후가 유의하게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심방세동을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심방의 구조적 손상이 아직 심하지 않은 초기에 시행할수록 절제술의 장기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과 맞물려,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현대 심방세동 치료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절제술을 받는 환자 비율은 놀라울 만큼 낮다. 미국과 유럽에서조차 전체 심방세동 환자의 5% 미만만이 카테터 절제술을 받고 있다. 시술 자체의 높은 복잡성, 기존 열 에너지 기반 절제술이 내포한 식도 손상·폐정맥 협착·횡격막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위험, 전문 센터에 대한 지리적·경제적 접근성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전국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카테터 절제술 시행률과 항부정맥제 처방률 모두 수도권이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지방 환자들은 동반 질환의 중증도가 더 높음에도 치료 접근성은 오히려 낮다는 역설적 현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응급실 재방문율과 예상치 못한 심혈관 입원율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절제술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기술이 바로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이다. 펄스장 절제술은 고전압의 전기 펄스를 이용해 심근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비열적 방식을 사용한다. 열이 아닌 전기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인 식도, 폐정맥, 횡격막 신경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장점이다. 실제로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에서 이러한 합병증이 사실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시술 시간도 기존 열 기반 절제술 대비 30~50% 단축되었다.

최근 본원에서 도입한 Boston Scientific사의 Farapulse PFA 시스템은 현재까지 글로벌 PFA 시장을 선도해온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시술 방식이 표준화·단순화되어 있어 시술자의 경험이나 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반드시 대형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근거가 된다.

물론 모든 심방세동 환자에게 이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응증과 시술 범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카테터 절제술을 위해 대도시 대형 병원을 찾아야 했던 이 지역 환자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최신 치료를 검토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역량을 넓혀가며, 지역 내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성실히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 심방세동 펄스장 절제술



세티리진

세티리진은 두드러기나 재채기, 콧물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알레르기 반응과 연관된 물질인 히스타민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

효능 · 효과 및 약리작용

히스타민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세균, 바이러스 또는 꽃가루 등과 같은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분비하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히스타민제는 H1-수용체를 저해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킨다. 뇌의 H1-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인체를 더욱 각성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경우 졸림, 진정, 기억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혈액-뇌 장벽을 거의 투과하지 않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구분된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에 비해 졸음, 진정 등의 부작용이 적다. 세티리진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졸음이나 진정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주의 사항

- 신장이나 간 기능 저하 환자 또는 고령 환자에서 세티리진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복용 전 의료진과 상의한다.
-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3일-10일까지 알레르기 피부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어, 피부반응검사 실시 3-5일 전에는 세티리진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용량 및 용법

종류	제형	제품 예	투여 가능 연령 및 용량·용법
단일제	정제	지르텍, 알러텍, 씨잘정[원내] (levocetirizine)	1일 1회 10mg씩 자기 전 복용
단일제	액제	세노바, 씨잘액[원내]	성인/12세 이상: 1일 1회 10ml씩 복용
			2-12세 미만(체중 30kg 이상): 1일 10ml 복용
			2-12세 미만(체중 30kg 미만): 1일 5ml 복용
단일제	정제	세라진에스, 센티콜, 코삭엘[원내]	식사 무관 1일 2회, 1회 1정 복용

금기

- 신부전 환자 금기
- 임부, 수유부, 임신 가능성 있는 여성에게 투여 금기
- 세티리진 단일제 정제의 경우 6세 미만 유아에게, 세티리진 단일제 액제의 경우 2세 미만 영아에게 투여 금기

부작용

- 무기력함, 두통, 불면증, 피로함, 어지러움 등

출처: 약학정보원 | 약제팀 신유리 약사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환우를 위한 희망 버스킹

6월 25일 병원 로비에서 예수의 까리파스 수녀회 소속 수녀 11명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전국 각지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수녀들이 수도회 주관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 계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의 까리파스 수녀회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스스로 기획한 공연이다. 제주, 서울, 수원,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바쁜 교육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5~6일간 합을 맞추어 공연을 준비했다. 공연에 참여한 수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준비한 공연이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버스킹에서 수녀들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포함해 20여 곡을 열창했다. 특히 투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의 쾌유를 비는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로비 곳곳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박수로 화답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위문

지난 6월 23일 오후 3시, 5A 병동과 9A 병동에서 국가유공자 대상 대통령 위문품 전수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에게 대통령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사회 내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서정미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이 직접 병실을 찾아 입원 중인 유공자들을 위로했다. 현장에서는 김문수 씨와 강성재 씨에게 대통령 명의의 홍삼 스틱 및 홍삼액 선물세트가 전달됐다. 서정미 지청장은 투병 중인 유공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국가를 위한 그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우리 병원은 국가보훈부 지정 보훈위탁병원으로서, 국가유공자가 지역 사회에서 편안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재활의학팀, 나눔의 선순환 이어가

지난 6월 17일 우리 병원 재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한 환자가 그동안 정성을 다해준 치료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재활의학팀은 환자의 정중한 뜻을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환자의 간절한 뜻에 따라 성금을 전달받고 이를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사회복지팀에 전액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재활의학팀은 지난 3월에도 신규 직원 5명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기금 정기후원에 동참하며 재활의학팀 전 직원이 정기후원자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류성민 재활의학팀장은 “환자 분이 보내주신 감사한 마음이 또 다른 이웃을 돕는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어 뜻깊다”라며 “이러한 작은 나눔이 병원 곳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복지팀 원내향 사회복지사



환자안전관리, 우수부서

정확한 환자확인을 포함하여 환자안전기준을 가장 잘 준수하고, 위해사건 이상의 환자 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3개 부서를 선정하여 2026년도 2분기 환자안전관리 우수부서표창을 수여하였다. [소감문] ● 환자안전 우수부서에 2회 연속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안전은 특별한 활동이 아닌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 환자와 보호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응급병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응급병동 이영미 수간호사

- 1분기 환자안전관리 우수부서 선정에 이어 2분기까지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최고의 성과는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안전한 하루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 내과계중환자실 이지연 수간호사
-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번 수상은 환자안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우리 부서 모든 직원들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자안전이 곧 최고의 의료서비스라는 마음으로 기본을 충실히 지키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혈관중환자실 이현숙 수간호사



가롤로 퀴즈

■ 아래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은 이번호 병원보 속에 있습니다.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뚜레쥬르 교환권(1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직원식당에 마련된 응모함에 매월 말일까지 넣어주세요.

1. 우리병원은 지역 내 병·의원 관계자들과 'OO OO 종합병원 지원사업' 진료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6월 25일 4층 요셉룸에서 개최했다.
2. 재활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심장·호흡재활치료는 올해로 몇 년 차를 맞았는가?
3. 심방세동 치료에서 고전압의 전기 펄스를 이용해 심근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비열적 방식의 시술 이름은 무엇인가? (힌트: 6글자)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① 신입간호사로의 새로운 여정
② 차세대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③ 가톨릭 치유 정신 되새김 '정재우 신부 초청 강연' 성료
④ 가정간호사업팀, 환자의 삶 속으로 스며들다

7월호 가롤로 퀴즈 정답

- 1.
- 2.
- 3.
- 4.

수신 : 홍보팀

소속 :

직종 :

성명 :

직통번호 :

가장 좋았던 기사 및 코너는?

독자의 목소리(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은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신체 컨디션의 저하와 식욕 저하가 생기기 쉬운 계절이다. 또한 더위로 인해 땀으로 인한 수분 배출이 많아 차가운 음료와 차가운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덥다고 차가운 음식만 찾고 균형 잡힌 섭취를 못 한다면 소화력은 약화되고, 여름철 더위로 지친 몸의 회복은 더디게 된다.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수분이 많은 과일 섭취하기
복숭아, 수박, 멜론 등의 여름철 과일은 수분이 함량이 높고,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이 풍부해 수분 보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단, 당뇨병 등 질환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2. 단백질 식품 챙겨 먹기
단백질은 한꺼번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매끼 규칙적으로 조금씩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위에 지치면 식욕이 없고 차가운 음료나 간단한 면류, 빵류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지는데,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체중감소, 근육 손실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소화하기 쉬운 달걀, 생선, 두부 등을 활용하면 소화 및 섭취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흔히들 생각하는 장어탕, 삼계탕 등의 음식은 한 끼에 많은 양의 단백질, 지방, 나트륨이 들어와

서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3. 수분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높은 채소 챙겨 먹기
수분 함량이 높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여름철 수분 보충 및 체력 충전이 도움이 된다. 여름철 채소로는 상추, 오이, 가지, 열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몇몇 재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지는 껍질의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 개선 및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분 함량도 높아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이도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수분 보충,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굴에 붙이면 수분공급, 열감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채소이다. 열무김치로 많이 먹는 열무도 빼놓을 수 없다.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4. 가장 중요한 식품의 안전과 위생 관리에 철저하기
여름철에는 고온·고습의 환경으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식중독이 유행하기 쉽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어패류로 인한 감염

(비브리오 등)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여름철 음식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① **냉장고 너무 믿지 않기**
냉장, 냉동고는 일정온도로 유지되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도 세균의 번식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가급적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리 정리정돈하여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면 좋다.
- ② **소비기한 확인하기**
대량 구매로 인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대량 구매 시 먼저 있던 제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하자.
- ③ **실온 보관은 최소화**
조리 후 먹고 남은 음식은 실온에 최소한으로 보관한다. 한꺼번에 큰 용기에 보관하는 것보다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것을 추천하며, 어렵다면 빨리 냉각시켜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위생 관리**
사용하는 식기, 조리도구, 주변까지 깨끗하게 씻고, 정리하는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손을 통한 오염을 막기 위해 손 위생도 철저해야 한다.

영양팀 김진아 영양사

334호

6월

가롤로퀴즈정답 & 당첨자(5명)

조민석 | 수술실 김도희 | 진료협력팀
김영설 | 외과 윤성태 | 의무기록팀
정유경 | 인공신장실

* 이번 달 퀴즈를 추천한 부서는 예방관리센터입니다.

1. 우리병원은 환자 중심의 첨단 디지털 의료 환경을 구현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6월 1일부터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2. 최근 신경과 신대수 과장이 수요강좌에서 발표한 주제는 뇌경색 골든타임의 중요성이다.

3. 영양팀은 5월 19일 1층 로비에서 당뇨, 신부전,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치료식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① 정재우 신부 초청강좌 개최
② 호남권역재활병원 초청 설명회 성료
③ 환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병원 환경 개선
④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나눈 '성모의 밤' 행사 성료

이달의 친절직원

간호부 10B 병동 전체

- 환자의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환자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된 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시종일관 평온하고 숙련된 태도를 유지하며 환자가 심리적 위축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간호부 5B 병동 김은지 간호사

-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시고 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로서는 너무 큰 안심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병실에 올 때마다 친절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환자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먼저 알아서 환자를 잘 돌보며 묻는 말에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 힘들거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잘 관찰해 주며 상냥한 말투와 인사로 환자를 대하는 행동 모두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간호부 내과중환자실 전체

- 바쁜 와중에도 불편해하는 환자를 위해 곳은일 마다하지 않고 소중한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태도를 칭찬합니다.
-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계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아닌 간호사님께 이런 감동을 받다니, 본인의 몸도 마음도 지친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두 손을 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복음 묵상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고통의 자리에서 피어오른 희망

매년 7월 31일이 되면 교회는 한 성인을 기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입니다. 2026년 이 기념일에 우리는 마태오 복음 13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고향 나 자렛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십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마태 13,55) 하는 말 속에는 익숙함이 낡는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 놀라운 은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어찌 보면 나자렛과 닮아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병고와 두려움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의 삶은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냐시오(1491~1556년)는 스페인의 귀족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영광을 꿈꾸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1521년 팜플로나 전투에서 포탄에 두 다리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군인으로서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수술의 고통,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다는 현실……. 그가 누운 병상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대 위에서 이냐시오는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불씨를 발견합니다. 세속적 영광을 꿈꿀 때의 공허함과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상상할 때 찾아오는 깊고 지속적인 평화, 바로 이 차이에서 그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알아챈다. 부서진 두 다리 위에서 비로소 하느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냐시오는 훗날 이 체험에서 영신수련(靈神修鍊)을 창시하고, 예수회를 세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절망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자리가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절의 자리도 당신의 길의 일부였습니다. 이냐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날마다 고통받는 이들 곁을 지키는 보호자와 가족과 의료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느님께서 침묵 속에 함께하시는 자리입니다. 이냐시오의 부서진 침대 위에 하느님이 계셨듯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도 하느님이 계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마태 13,57) 이 말씀은 배척당하는 자리에도 당신은 머무르신다는 선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병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고통이 무너뜨린 자리에, 하느님께서 더 깊은 희망을 심어 주고 계십니다.

유촌동성당 주락권(세례자요한) 신부

그림 출처: <https://www.jesuitscentralsouthern.org>

진료부 신경과 강종수 과장

● 항상 환자의 눈높이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강종수 과장님은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주시는 의사이셨습니다.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마음도 잘생기신 강종수 과장님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리며,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으며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부 정형외과 임경훈 과장

● 저를 잘 수술해 주시고 퇴원하기까지 돌봐주신 임경훈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과장님은 입원 환자도 많고 외래 보시는 날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언제나 친절하십니다. 입원 내내 회진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십니다. 과장님 손길만 닿아도 통증이 가라앉고 다 낫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가롤로병원 외래진료 안내

대표전화 061)720-2000, 종합안내 061)720-2500,
방사선 암 치료 061)720-6900, 건강증진센터 061)907-7200~7203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불우환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 관리규정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 예 금 주: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700-107-500533
광주은행: 1127-020-225740
농 협: 317-0005-2620-81



■ 후원문의 | 재무경영팀 ☎ 061)720-6420~1

■ 후원 해 주시는 분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법인 포함)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6.6.1~6.30)

고호문, 김명자, 김영휴, 나재형, 동성메디스, 박병완 세무사, 서빛나, 엘에스메디칼, 지성메디텍, 천우의료기, 최윤영, 최치환, KFTCCMS, 익명 4명, CMS약정자 12명

보폭 넓히는 의료봉사단, 경남 하동서 첫 활동

성가롤로병원 의료봉사단은 6월 20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신지마을을 찾아 화심장로교회에 진료 현장을 꾸리고 지역 주민들을 맞이했다.

이번 봉사는 경상남도 지역에서 진행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우리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며 사랑과 나눔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건평 단장(비뇨의학과)을 비롯한 의료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접수부터 혈압·혈당 측정, 진료와 투약, 수액 처치,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을 주민 80여 명의 건강을 살폈다. 특히 복부 초음파 26건, 수액 주사 67건 등의 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활동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모였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가 파스를 지원했고, 성가롤로자선회는 빵과 음료를 준비해 훈훈함을 더했다. 장소를 제공한 화심장로교회 또한 다과와 생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김건평 단장은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병원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봉사단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병원 의료봉사단은 병원 진료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연 4회 찾아가는 의료봉사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소외된 곳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지역민의 곁에서 묵묵히 희망을 나누는 의료봉사단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사회복지팀 임소는 사회복지사



환자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가정간호사업팀

병원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환자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집’이라는 공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다. 가정간호사업팀은 뇌질환, 척추손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찾아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등 왕복 60km 이내 지역을 부지런히 누빈다.

최근 가정간호사업팀이 새로운 차량을 마련했다. 원목신부의 축복을 받은 이 차는 앞으로 가정간호사업팀을 더 많은 환자들과 이어줄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이다. 주로 시행하는 의료서비스는 기관지절개관·비위관 교체 및 관리, 위루관 관리, 경관영양법 교육, 유치도뇨관 교체 및 관리, 중심정맥관 관리 및 수액요법, 욕창 치료, 피부 간호, 상처 치료, 봉합선 제거, 장루 및 방광루 관리, 관장 등이다. 보호자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간호 방법이나 각종 의료기구와 가정용품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제공한다. 또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법,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입원 상담도 시행한다.

2001년부터 가정간호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이레 펠리치타스 팀장은 “익숙한 환경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 환자의 회복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일 확인한다.”라고 말한다. 이이레 팀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인간호’다. 전인간호는 질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전체’를 돌보는 것이다. 환자가 병원이라는 공간보다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치료 받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존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정간호의 목적이다. 이에 가정간호사업팀은 간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오늘도 환자의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든다.

